

주님과 함께 환자들과 동행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원목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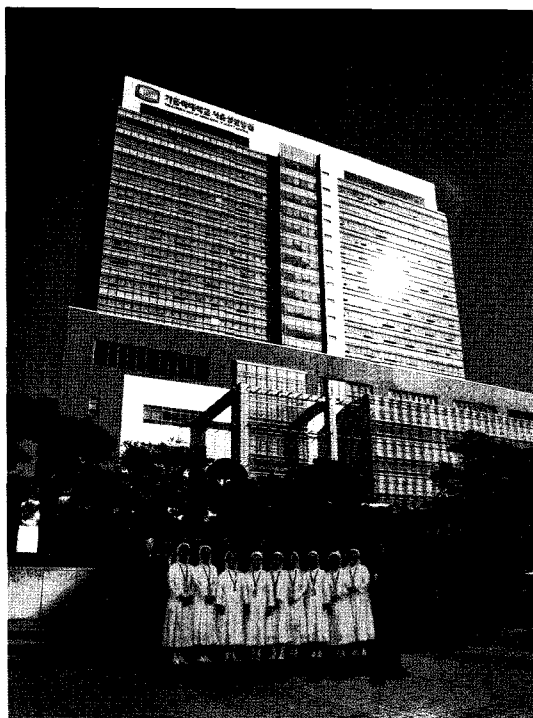


장 수은¹젬마 수녀
서울성모병원 원목팀 ITC

들어가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순례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유순하게 품어 안았다.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응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하느님은 그의 존재를 거듭 드높이시어 축복하셨다. 이름을 바꾸시어(아브람 → 아브라함) 넓고 큰마음으로 민족을 품게 하시고, 눈을 맑고 깊게 하시어 생(生)을 통찰하는 새로운 시선으로 삶의 지평을 넓혀 주셨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돌보시듯, 우리 원목팀도 아픈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어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1980년에 탄생된 강남성모병원 원목팀은 사제 1명, 수녀 2명으로 시작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원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덧 30해를 맞게 되었다. 2009년에 새 병원이 개원되자, 강남성모병원 원목팀은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사제 5명과 수녀 9명, 직원 2명으로 원목팀은 16명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30병동, 1,500명상의 환자들을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나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누며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 병원에 채우도록 하셨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새 부대에, 우리들은 묵은 술이 아닌 새 술을 채워야 했다. 새 술을 마련하는 데는 다시 처음부터 재료를 다듬는 성실한 손길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새 맛을 즐기는 모험심이 필요하였다. 하느님이 우리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을 통해 마련하고픈 새 술은 무엇일까? 이는 늘 품어야 할 마음의 씨앗일 것이다.



이제껏 헌신해 왔던 원목 활동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새롭게 마련해주신 새 술에 비유할 수 있는 원목 활동들이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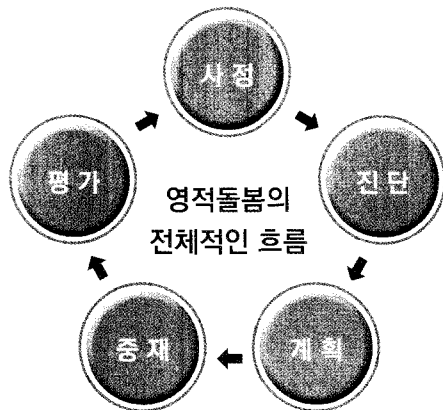
중 3가지, 첫째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영적돌봄 기록 작성 활성화, 둘째는 원목팀의 PI(Performance Improvement)활동, 셋째는 교직원들을 위한 성경공부(말씀 동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01 | EMR 영적돌봄 기록 작성 활성화

영적돌봄은 심각한 만성적 질병이나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이들에게 그들이 현재 체험하고 있는 한계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초월적 의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데 있다. 환자를 영적으로 돌보는 원목자는 환자의 영적 감수성(spiritual sensitivity)을 증대시키도록 도와야 하며, 함께 나누었던 만남 속에서 환자의 내적 상태와 변화를 통찰(insight)하며 환자 안에서 활동하는 영의 움직임을 감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 여정을 성실히 기록하는 것은 영적돌봄의 적극적인 행위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EMR 영적돌봄 기록지는 환자들의 영적 돌봄(Spiritual Care)에 더 깊은 내적준비와 작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도구라 하겠다. 이는 CMC 산하 8개 병원 중 5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영적돌봄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 EMR 기록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돌봄지를 순차적으로 작성해 나가다 보면 환자를 돌보아야 할 방향의 길이 정해진다.



■ 영적 사정(Spiritual Assessment)

영적 사정은 원목자가 돌보게 될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영적돌봄의 첫 단계이다. 우선 환자의 가족관계 및 배경, 종교, 영적지원 체계, 삶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이는 환자에 대한 이해와 질적인 영적돌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토대가 되며 다른 모든 단계의 열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영적 진단(Spiritual Diagnosis)

환자는 영적 고통, 즉 자신에게 힘을 주고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들이 방해받거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여 내외적인 통합이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 이러한 때 영적 고통과 관련된 환자의 핵심 감정(두려움/불안/자존감 저하/무력감/슬픔/외로움/절망감)이 무엇인지 식별하여 진단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 영적진단이라고 한다. 진단은 환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름 지음으로써 돌봄의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 영적돌봄 계획(Spiritual Care Plan)

영적 진단을 내린 뒤, 환자가 겪고 있는 영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계획은 가능하다면 환자 또는 가족과 협의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영적 중재(Spiritual Intervention)

영적 중재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의 영적인 안정과 내적인 회복을 위해 원목자가 계획을 가지고 베푸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도, 미사, 성사 등 종교적인 지지를 통해 현실을 수용하고 고통 안에 깃든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원목자는 환자와 상호 관계적인 지지를 나누도록 적극적인 태도(환경조성, 경청, 공감, 안심, 신체적 지지, 가족지지, 감정표출...)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보완적 지지와 원목자 자신이 아닌 다른 원목자, 봉사자, 사회사업가, 가정간호사 등 보다 전문성을 지닌 이들에게 의뢰하고 연계하여 환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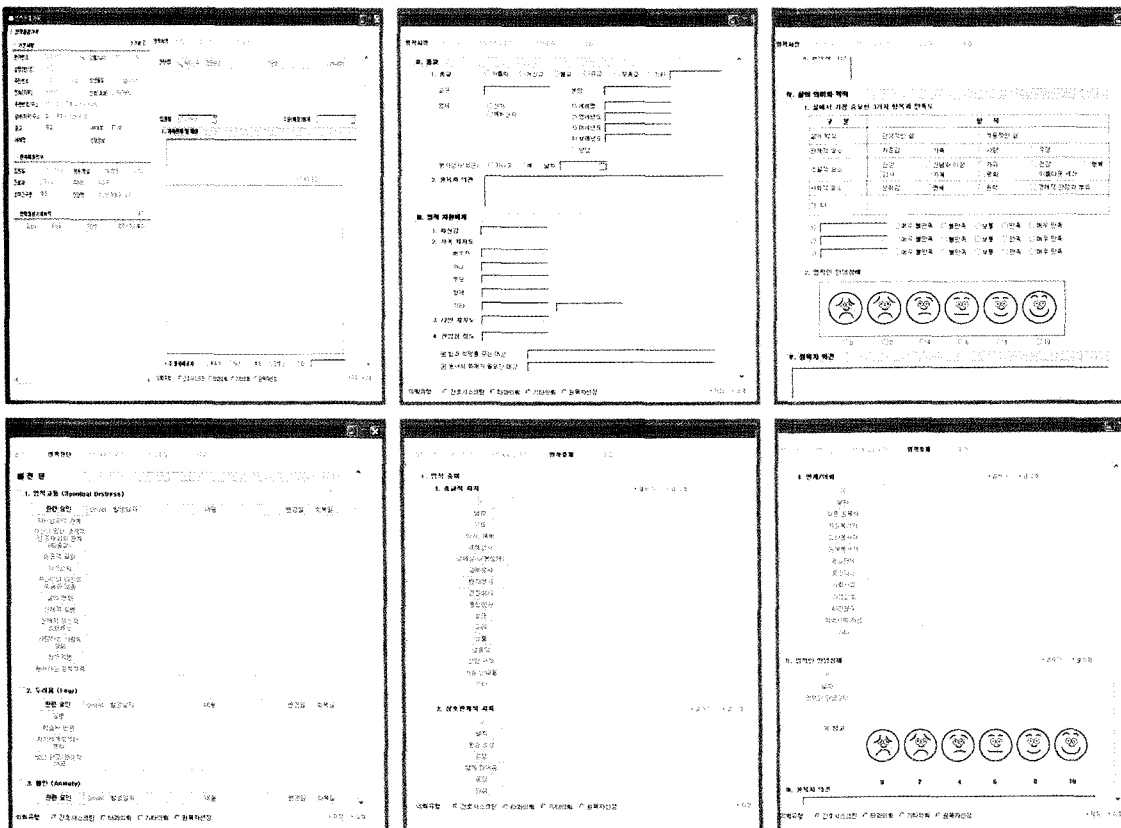
평가는 영적돌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계획 과정에서 설정한 영적돌봄의 목표를 환자의 현재 영적 상태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며, 이는 대상자의 치료와 입원의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환자의 영적 고통이 해결되고,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면 영적돌봄은 종결되지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환자에게 새로운 영적 진단이 내려지면 돌봄을 위한 재계획을 세워 다시 영적돌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중재를 실시한다.

환자 중심의 원목을 돕는 영적돌봄 기록지가 지닌 장점을 살펴보면 ① **통합적 돌봄**: 환자의 영적 사정, 구체적인 돌봄 계획, 중재, 평가까지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② **신속하게 파악**: 환자의 영적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영적돌봄 계획이 가능하고, 작성되는 양과 내용에 따라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사전준비 철저**: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자료를 보

며 영적상태 정보를 알 수 있다. ④ **지속적인 돌봄**: 원목 활동을 성찰하는 중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다음 돌봄 계획에 도움을 주어 지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⑤ **환자와 원목자의 유대관계**: 영적돌봄 기록지를 작성하는 동안 원목자는 환자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환자의 내면적인 변화의 치유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되어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된다.

EMR 영적돌봄 기록지가 지닌 또 다른 이점은 **연계성**이다.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한 EMR 영적돌봄 기록지는 다른 원목자와 환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환자가 이실 할 경우 다른 원목자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nU상의 타과의뢰 회신을 통해 의료진(의사, 간호사)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MR 영적돌봄 기록지를 기초로 서울성모병원 원목팀 수녀들은 연간 계획을 세워 서로 사례 발표(case study)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원목자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EMR 영적돌봄 기록지

원목팀의 고유한 소명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특별히 아픈 영혼을 품는 것, 질병이라는 어두운 손님 앞에서 주저 않아버린 영혼을 일으키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경직된 영혼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주며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치유의 도구로서 원목자는 영혼의 손가락을 성실히 움직여서 하느님의 도움이 굽어 내리도록 하늘에 청원의 편지를 띄우는 것이다. 우리 원목자에게 EMR 영적돌봄 기록지는 환자와 나누었던 사랑을 채우는 영혼의 일기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컴퓨터 화면에 갇혀있고, 딱딱한 형식의 프로그램 안에 자판을 두드리며 작성해야하는 EMR 영적돌봄 기록지!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작업은 여느 직장인의 삭막한 업무처럼 보이거나 우리는 그 너머의 고귀한 의미! 사랑의 기록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훗날 이 기록이 어떠한 가치를 발휘할지, 누군가에게 귀한 도움이 될지 모르기에...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움직임에 답아야 할 것이다.

02¹ 원목실 PI 개선활동을 통한 영적돌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

환자들과 교직원들을 향한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의 새로운 도전은 PI(Performance Improvement) 개선활동을 통한 영적돌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원목팀도 PI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 2010년 PI 학술대회를 통해 병원의 모든 이들과 나누었고,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더욱 격려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PI 활동을 위해서는 더 주의 깊은 시선으로 아프고 힘겨운 이들을 살피며, 원목활동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가늠할 수 있는 섬세한 사랑이 필요하다.

서울성모병원의 BMT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외부와 단절된 환자들의 우울함과 정서적, 영적 지지에 대한 목마름에 감응한 원목자는 그들을 돕기 위해 'BMT 폐쇄병동 환자들을 위한 정서적, 영적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주제로 PI 활동의 여정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맹목적인 도움, 개인적인 열성만이 아니라, 원목팀, 간호팀, 사회사업팀, 평생교육원이 다학제팀을 이루어 BMT 환자들이 지닌 정서적,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설문과 인터뷰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표 측정과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문제 핵심원인에 따른 개선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일강좌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여 BMT 폐쇄병동 내에 미술치료, 종이접기, 스트레스관리,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다. 아프고 힘겨운 어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원목자와 봉사자들은 PI 활동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11년에는 병원 내에 가장 소진율과 이직률이 높아 힘겨움을 호소하는 응급의료 간호팀이 원목팀에 도움을 청하여 '2011년 원목팀의 응급실 간호사들의 내적 성장을 위한 지지활동'이라는 주제로 PI 활동을 하고 있다. CS팀의 참여까지 이루어져, 설문지를 통



해 간호사들의 내외적인 사정을 이해하여 소진에 관한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였다. 간호사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향상, 관계성, 환경요인에 따른 내적 성장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버추 카드(virtue card) 프로그램, 구슬 넣기 프로그램, 회복의 시간, 업무활동 사진을 담아 준비한 영상과 관계성 향상을 위한 복주머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바쁜 업무 중에도 자신을 돌보는 능력과 동료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호직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여정을 함께하며, 원목팀의 고유한 소명인 영적돌봄을 환자와 더불어 교직원들과도 나누는 보람을 느꼈다.

03¹ 교직원 돌봄 (말씀 동아리 · 영성 교육)

이처럼 환자 돌봄뿐 아니라, 환자를 만나는 교직원들에 대한 돌봄이 근원적인 과제임을 깨달은 원목팀은 교직원의 내적 성장과 영적 자질의 향상을 위해 1년에 3차례(부활반, 성모승천반, 성탄반) 예비자를 모집한다. 사제들이 교직원 예비자 교리 수업을 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나누고, 세례자들을 위한 후속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하여 착한 목자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원목팀 수녀들은 모두 말씀 동아리에 함께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며 그 안에서 의료인의 소명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11개 그룹이며 총 83명의 회원이 있다. 또한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특강을 1년에 4차

레 실시하며, 그 밖에 교직원 성지순례, 교직원 소풍, 교직원 피정을 통해 서울성모병원이라는 새 부대에 영혼의 술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원목팀은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나오며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공동체의 힘에서 비롯된다. 하느님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지닌 16명의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은 상호간의 나눔과 교류를 통해 매순간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만나고 있다. 주님과 함께 환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치유의 사랑을 담아 기도하고 위로하는 원목자 개인 소명에 대한 충실함과 더불어,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행하고 있다. 하느님의 은총과 손길에 의탁하여 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이 담아 주시는 각자의 꿈과 솟아오르는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을 실현하고 있다. 사람의 나이에 비유하자면 원목팀은 30대를 맞았다. 더욱 원숙해지고 여유로워져 이미 알고 행하고 있는 익숙함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원목팀의 의지를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